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중심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희망과 일체감이라는 독특한 기별을 북미 지회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부는 모든 교인들이 이 비전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지적인 헌금은 충실한 청지기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사용하십니다.

웹사이트 www.nadstewardship.org/videos 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헌금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헌금 수합 시간에 사용하실 수 있고, 영상의 평균 길이는 1 분 30 초에서 2 분 사이입니다.

충실한 청지기 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너그러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실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실한 청지기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Michael Anthony Harpe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북미 지회 청지기부장

북미 지회 내 청지기 부장

Marcos Bomfim, General Conference

Michael Harpe, North American Division

Cynthia Huskins, Atlantic Union

Paul Musafili,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Canada

Emmanuel Asiedu, Columbia Union

Jermaine Jackson, Lake Union

David VandeVere, Mid-America Union

Mark Remboldt, North Pacific Union

Stephen Mayer, Pacific Union

David Long, Southern Union

Tony Anobile, Southwestern Union

Don Lloyd, Guam-Micronesia Mission

저자 소개

멜빈 산토스 (Melvin Santos) 목사는 캔자스-네브래스카 합회의 부합회장 겸 청지기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제자훈련 마스터 플랜: 교회와 합회를 위한 제자훈련 전략 (Discipleship Master Plan: A Disciple-making Strategy for Churches and Conferences)'의 저자이자 강사이기도 하다. 젊어서 그는 전 대총회 청지기부장이었던 멜 리스 (Mel Rees) 목사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멜빈 목사는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 그들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훈련하는 것을 즐겨 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제자훈련 리더는 헌신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멜빈 목사는 여가 시간에 디지털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여행과 정원 가꾸기, 그리고 여러 나라를 탐험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겨 한다.

저자는 현재 캔자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자훈련 마스터플랜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내 줄리엣 산토스와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두 딸과 사위 (엘리자베스(폴), 로렌(브래드)), 그리고 막내아들 (마이클)을 둔 자랑스러운 부모이기도 하다.

낭독문에 관하여

이 자료는 추가 허가 없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단체에 의해 번역, 인쇄 또는 복사될 수 있다. 다만 재발행 된 문서에는 북미 지회 청지기부라는 크레딧 라인이 포함되어야 □ 다.

모든 성경절은 개역개정 역본을 사용했다.

개인 헌금 계획 (My Personal Giving Plan)에 관하여

북미 지회는 "개인 헌금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각 교인이 수입의 10 퍼센트인 십일조 외에 특정 비율의 헌금을 정해 세 가지 범주를 위해 드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Local Church Budget (지역 교회 예산): 3–5 퍼센트
- Conference Advance (합회 지원 헌금): 1–2 퍼센트
(교육, 선교, 방학성경학교, 여름 캠프, 연합회 잡지)
- World Budget (세계 선교 헌금): 1–3 퍼센트

https://www.personalgivingplan.com 에 방문하면 각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 청지기 원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독려한다. 이 계획을 통해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지만, 이 계획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믿음에 기초한 언약에 굳게 선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질서와 목적을 갖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요한다. 감정이나 산발적인 헌금을 통해서는 어떤 위대한 사역도 이룰 수 없다.

2025 년 헌금 일정 – 북미 지회

특별 헌금

1 월 11 일	종교 자유
2 월 8 일	TV 방송 선교
3 월 8 일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
4 월 12 일	국제 호프 채널
5 월 10 일	재난 및 기근 구호
6 월 14 일	여성전도부 사역
7 월 12 일	대총회 헌금: 디지털 전략 선교 헌금
8 월 9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
9 월 13 일	세계 선교 헌금 (강조: 라디오 선교)
11 월 8 일	세계 선교 헌금 (강조: 연말 희생감사)
12 월 13 일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2025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

1 기: 북아태지회 (NSD)

2 기: 남아태지회 (SSD)

3 기: 남아프리카인도양지회 (SID)

4 기: 남아메리카지회 (SAD)

헌금 요약

지역 교회 예산	27
합회 지원 헌금	12
연합회 지원 헌금	2
북미 지회	5
세계 선교	6

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열 셋째 안식일 헌금

여러분은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헛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돕는지 들어봤을 것이다 (a barn raising- 커뮤니티 구성원 중 한 명의 헛간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커뮤니티의 집단 행동. 역자 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도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목적이다. 매 열 셋째 안식일마다 전세계 모든 교회는 여러 지회 중 한 곳이 추진하고 있는 한 개의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한다. 선교 프로젝트는 주로 교육, 전도 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사용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다.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은 센트럴 필리핀 재림교회 대학과 같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사용되어왔다. 최근 드려진 헌금으로 벨리즈에 청소년 캠프를 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3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액은 474 달러였지만, 지금은 25 만 달러가 넘게 드려진다. 우리는 이 헌금을 가리켜 추가 헌금 (overflow offe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선교 헌금 외에 추가로 헌금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25 퍼센트는 추가분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헌금은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언제든지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은 큰 사역의 일부가 되어 동참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기억하여 드려보라. 여러분은 세계적인 재림교회 선교 사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선교 사역을 마치기 위해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Birthday Thank Offering (생일 감사 헌금)

우리는 생일 때 보통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날 오히려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생일 감사 헌금이라고 부른다.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을 줘 본 경험이 있는가? 아마도 주말 동안 당신의 고양이를 돌봐주거나 당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는지 보여주고 싶어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교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일이 그 중 하루일 수 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처럼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드리기도 한다. 혹은 새 손주를 얻었을 때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은 이 모든 특별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으로서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드린다.

그렇다면 생일 감사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이 헌금은 선교를 위해 북미 밖의 타 지회로 보내져 선교 활동에 사용된다. 이 헌금의 대부분은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또한 이 헌금의 일부는 선교사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어 재림 기별을 전파하도록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 이 헌금은 감사한 마음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onference Advance (합회 지원 헌금)

합회는 지역 교회들과 자매결연으로 맺어져 있어 각 교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합회 지원 헌금은 이러한 특별한 필요와 지역의 다양한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 헌금의 가장 큰 사용처 중 하나는 기독교 교육 기금이다. 합회 지원 헌금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린이 전도, 도시 전도, 방학 성경 학교, 여름 캠프, 청소년 선교도 이 헌금이 지원하는 분야이다. 합회 지원 헌금의 또 다른 혜택은 인기 있는 연합회 신문과 잡지를 교인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익한 출판물은 넓은 지역에 걸쳐 사는 교인들을 단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들은 교인 개개인이 수입의 1~2%를 합회 지원 헌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Local Church Budget (지역 교회 예산)

아마도 개인 헌금 계획에서 다루는 가장 분명한 분야는 지역 교회일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처럼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기와 난방시설처럼 어떤 것들은 그 필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잡지, 안식일 학교 성경 공부 교재, 교육 용품, 교직원 급여, 청소비, 교회 학교 운영자금, 보험, 학생 기금,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지출은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 매달 감당해야 하는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3~5%를 지역 교회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조직적인 헌금은 지역 교회의 축복과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Mission Investment Offering (선교 투자 헌금)

선교 투자 헌금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쉽이다. 먼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선교 투자 헌금에 수입을 헌신하는 것이다.

닭 관련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켈리 로즈 비숍이 십대였을 때 그녀는 계란 사업의 10%를 투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과 집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팔았다. 두 달 후 그녀의 매출은 50%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쉽이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녀는 수입의 10%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몫), 그 10%는 더 큰 수입을 가져왔기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에 축복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 큰 수입은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나님과 파트너쉽을 맺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절약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외식할 때 디저트를 사먹지 않고 절약한 돈을 드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조깅을 하면서 주운 알루미늄 캔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드린 모든 헌금은 재림 기별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오늘 당신만의 선교 투자 헌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

Sabbath School Mission Offering (안식일 학교 선교 헌금)

안식일 학교 선교 헌금 봉투가 오면 보통 1 달러나 2 달러를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되면 더 드리고 싶게 될 것이다!

선교 헌금은 북미 지회 외 타 지회의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진다. 이 헌금의 많은 부분이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돕기 위해 보내진다.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 역시 이 헌금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일부는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임지로 보낼 선교사를 교육하는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 퍼져 나간다.

World Budget Offering (세계 선교 헌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며, 세계 선교 헌금은 이 세계적인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다.

재림교회 초창기부터 재림교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감당해 왔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매일 3,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200 여 개 국가에서 600 여 개 언어로 속히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선진국에 사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구성원들의 특권과 의무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의 헌금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1~3%를 이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정해 놓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재림 기별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Special Projects Offerings (특별 프로젝트 헌금)

이 헌금은 여성전도부와 기독교 기록 사역과 같은 사역을 포함한다. 개인 헌금 계획은 프로젝트마다 필요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정 비율을 제안하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헌금은 지역 교회 건축 계획이나 선교 여행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특별 프로젝트에는 아드라 (ADRA) 및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와 같은 재림 교회 내 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재림교회 사역팀의 도움 요청도 포함된다.

2025 년 북미 지회 안식일 학교 선교 투자 헌금 프로젝트

MID-AMERICA UNION (중앙아메리카 연합회)

미네소타 합회의 텐트메이커 선교 운동은 평신도들이 직장에서 소규모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이다.

뉴헤이븐(New Haven) 교회(캔자스주 오버랜드파크)는 노숙자 사역의 일환으로 밤 기온이 25 도(화씨) 이하로 떨어지는 오후 6 시에서 오전 8 시 사이에 8-12 명을 보호하는 극한 추위 소그룹 스테이션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NORTH PACIFIC UNION (북태평양 연합회)

시애틀/타코마 대도시 지역은 미국에서 재림교인 대 일반 인구 비율이 1:900 으로 재림교인이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이다. 워싱턴 합회는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운동에 기반을 둔 영향력 센터를 시작하고 있다.

PACIFIC UNION (태평양 연합회)

인구 3,000 명 미만의 작은 섬에 위치한 라나이(Lanai) 교회는 시설 확장이 절실하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 안식일 학교, 행사, 초청 강사를 위한 숙소(섬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 방은 1 박에 1,000 달러가 넘는다)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발표자님께

귀 교회에 본 헌금 호소문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분명 멋지고 기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기도: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의 봉독을 통해 회중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습: 호소문을 숙지하도록 적어도 세 번 이상 읽는 것은 제안 드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읽습니다. 읽는 동안 강조할 핵심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호소문을 탁월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준비: 때때로 특별 헌금일을 위한 자료들이 교회로 전달 되어 성도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호소문과 함께 발표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경험: 호소에 힘을 실어줄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독하기: 위의 모든 요소를 갖고 봉독할 수 있지만 열정이 없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호소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발표자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발표자님의 낭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필자: 멜빈 산토스 (Melvin Santos)

편집자: 마이클 하프 (Michael Harpe), 루디 살라자르 (Rudy Salazar) & 리사 라스무센 (Lisa Rasmussen)

북미 지회 청지기부 © 2025

2025 년 1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새해 첫 안식일은 우리의 삶, 목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 동안 기도 수첩을 쓰고 있었다면 오늘 시간을 내어 그 수첩을 꺼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라.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다가올 한 해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물어보라. 그 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고 말씀하시며 삶의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삶을 이미 지배하고 삼켜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하자. 예수님은 행복, 안전, 성공, 심지어 돈과 같은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먼저 둘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올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 월 11 일

종교 자유

종종 종교 자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DNA에 들어 있다고 말한다. 재림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그 당시 혁신적인 개념이었던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신조는 무엇에 의해 형성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품성에서 비롯되었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하므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쟁투, 493).

그래서 1906년에 발행된 리버티 (Liberty) 잡지의 첫 번째 호에서 편집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 독특한 재림교회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사랑의 힘 외에는 그 어떤 힘도 인간의 양심을 올바르게 강요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거의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의 문화는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예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박탈될 시기가 올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 대사로 부르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교회의 종교 자유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헌신하자.

2025 년 1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나는 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우주와 은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왜 그분의 백성들에게 헌금을 구걸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으시거나 자녀들이 가난하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분은 왜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다가 시편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2,14-15).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헌금이 아닌 그분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헌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는 관계적 경험을 쌓게 한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분의 왕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우리의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 월 25 일

합회 지원 헌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소유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분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긴밀히 협력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 그리고 자비와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죄가 들어온 후 이 관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 과정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 그 이상이다. 그것은 바로 성장과 배움, 그리고 변화의 개인적인 여정인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품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헌금을 드리고 타인과 나누는 것은 경배와 관계 회복이라는 큰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주된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도록 설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조직적인 자선의 계획을 자신을 부요케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는 이 자선의 제도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아셨다" (청지기, 67-68).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오늘 그 축복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도록 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으로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2 월 1 일

지역 교회 예산

잠언 3 장은 이렇게 말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10).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세미나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미시간 주 베리언 스프링스로 날아갔다. 아프트에 도착해보니 가구도 거의 없었고 우리 짐이라고는 여행 가방 안에 들은 옷가지와 짐이 전부였다. 그래서 바로 쇼핑을 하러 갔다.

첫 전자렌지와 냄비와 프라이팬 세트를 구입했을 때 나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어떤 강력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느낌은 구입한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이제 우리 부부 공동의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혼한 부부로서 이것들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분을 대신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가 소유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이러한 청지기적 헌금 계획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축복을 나눔으로써 넘치도록 충만해지는 경험을 체험해 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2 월 8 일

TV 방송 선교

고린도전서 9 장 22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북미에 있는 재림 교회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바로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림교회 미디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만약 사도 바울이 21 세기에 살고 있었다면 현대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희망과 회복에 대한 기별을 전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베드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주님의 양을 먹였을 것이다. 우리는 책이나 팜플렛보다 TV 를 더 많이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 시간 51 분 동안 TV 를 시청하는 반면, 책을 읽는 시간은 16 분 48 초에 지나지 않는다.

엘렌 화잇은 1914 년에 "인쇄된 페이지의 보급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4 년 11 월 5 일)고 말했다.
오늘날 화잇 여사가 살아 있었다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 TV 를 강력한 요소로 꼽았을 것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재림교회 TV 방송 선교 사역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찾는 이들과 길을 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역은 분명 대사명을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5 년 2 월 15 일

지역 교회 예산

조셉 리크는 죽으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공하는 단체에 180 만 달러에 가까운 기부금을 남겼다. 겉보기엔 그 기부가 특이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의 딸들에 따르면 90 세 노인이 된 그는 극빈자처럼 살았다고 한다. 그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이웃집에서 TV 를 시청하고, 집 수리를 미루고, 늘 헌 옷을 사 입었다. 조셉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분명한 목적 즉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진짜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헌금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구속 과정의 일부로 헌금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헌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과 관대함의 정신은 약해진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부합하는 관대한 정신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헌금의 동기는 지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열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금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깊은 헌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타심을 반영하는 헌금을 드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2 월 22 일

합회 지원 헌금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소들을 특정한 순서로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류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논리적인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만들어 인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다.

하지만 죄가 이 계획을 망쳤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안식일과 시간, 재능, 재정, 성전, 간증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사용하여 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부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십일조와 헌금이다.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헌금하는 것은 친절함과 이타심을 기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관대해진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겸손해진다. 또한 헌금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3 월 1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몇 년 전 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와 동기 유발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등의 보상이나 위협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한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용한다. 이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조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통계적 수치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여 노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은 낮은 수준의 동기이며 단기적인 효력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십일조와 헌금에 관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가장 높은 동기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 이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깊은 개인적인 유대감과 헌신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선물인 독생자를 통한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청지기, 72).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헌금하자.

2025 년 3 월 8 일

세계 라디오 선교(AWR)

(헌금 낭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AWR 2025 년 동영상과 최신 헌금 자료는 awr.org/offering 에서 다운로드하라.)

세계 라디오 선교 (AWR) 사역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여 현지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괌에 있는 AWR 단파 타워에서 전 세계 2,000 개 라디오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매일 130 개 이상의 언어로 기별이 전파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의 수신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AWR 은 유튜브 동영상, 미니스트리 앱, 전도지 등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사역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로 작동하는 갓팟 (Godpods)은 수감자부터 목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역을 위한 세미트럭'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가는 곳마다 성경에 근거한 희망의 기별을 방송하고 있다.

2023 년과 2024 년, 이 사역은 대총회의 "전 교인 참여 운동 (TMI)"에 동참하여 '유럽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Europe)' 전도 기간 동안 40 여 개국에서 1,500 회 이상의 집회를 열었다. 영국에서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 행사 직후 잠비아, 르완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고 많은 침례식이 뒤따랐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 (합 1:5)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놀라고 있다.

세계 라디오 선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25 년 3 월 15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한 나라는 우리가 사는 북미처럼 편의시설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낡고 허름한 집에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아무도 차량을 소유하지 못했고 모두가 걸어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 보였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깊고 진실했으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 많은 것을 간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큰 위험은 내 삶에서 물건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왜 그럴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모든 교인들이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충실하게 된다면, 모두가 철저한 열성을 나타낸다면 본고장이나 외방 선교를 위한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재원은 증가될 것이고, 천 개의 공효의 문이 열릴 것이며, 우리는 그리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6 증언, 450).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3 월 22 일

합회 지원 헌금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가르침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이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거룩한 계획을 세우셨다. 일주일 중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거룩한 날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도록 구별된 날이며, 나머지 6 일은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졌다.

마찬가지로 십일조로 알려진 우리 수입이나 소유의 10 분의 1 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그것을 관리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일조는 그분의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몫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경배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헌금이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라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문제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 우리가 관리자임을 잊고 주인이라는 입장을 취할 때 시작된다. 우리의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쉬는 숨조차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그분을 예배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3 월 29 일

지역 교회 예산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다. 세 종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다. 두 명은 달란트를 현명하게 투자하여 칭찬을 받았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달란트를 숨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재물, 성전 (몸), 간증을 관리할 책임을 주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 시간과 관련해선 일주일의 하루를 드리는 것이고, 재능은 사용하여 두 배로 늘리는 것이고, 재물은 10 분의 1 을 드리는 것이고, 건강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부를 맡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그분의 달란트를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겠는가?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4 월 5 일

지역 교회 예산

연구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수를 10 조 마리로 추정한다.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며 다양한 일을 매우 부지런히 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왕" 개미를 위한 것이다. 개미는 군집 없이는 무력하지만 팀을 이뤄 일할 때는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다.

시편 8 편의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창조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그토록 돌보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 게다가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원대한 목적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음 겨울을 대비하며 충분한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마리의 개미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삼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칠 때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수많은 개미들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4 월 12 일

국제 호프 채널

국제 호프 채널 (HCI)은 신앙, 건강, 관계, 공동체에 총체적인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림교회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이다. 호프 채널은 2003 년에 북미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는 80 개 이상의 채널에서 100 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었다. 2023 년 12 월, 연말 시즌을 맞아 국제 호프 채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퀘어에 전략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루 평균 33 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한 광고판을 통해 이 캠페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 장 1 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과 24 시간 내내 방영되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호프 채널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손에서 받은 축복 가운데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호프 채널이 가정 뿐만 아니라 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2025 년 4 월 19 일

지역 교회 예산

찰스 슈왑 (Charles Schwab),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는 사람들의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 자문을 제공하는 많은 금융 기관 중 일부 기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 확실한 투자를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5:19-21). 다시 말해, 여러분의 보물을 천국에 투자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넓히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간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십일조와 자발적인 헌금을 충실히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계획의 전부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필요가 요구될수록 그분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신다. 따라서 우리가 더 충실하게 드릴수록 그분은 더 많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룩한 파트너십이다.

이 계획 외에 다른 계획도, 대안도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옳은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의 투자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늘 왕국 사업에 투자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라.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15 년 4 월 26 일

합회 지원 헌금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어렸을 때 나는 집사님들과 함께 헌금을 걷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어리고 순진했던 나는 도대체 어떻게 걷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궁금해하며, 이 딜레마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중에 가져가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걸까? 그러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주와 은하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동역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 그분의 왕국을 성장시키도록 동참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조직적인 헌금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발시켜 준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하늘의 기관들과 함께 위대한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요하게 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되 자아 희생적 노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청지기, 18-19).

오늘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15 년 5 월 3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어느 날 로우스 (Lowe's)에서 쇼핑을 하다가 야외 정원 코너를 통해 들어온 새 한 마리가 매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것 같았고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서인지 많이 쇠약해 보였다. 이 새를 그곳에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다. 그 때 마침 버려진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새를 상자에 담아 집으로 데려가 임시 새장에 넣고 물과 먹이를 주었다. 다음 날 새가 좀 더 기운을 차리고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을 보고, 새장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새장 문을 열어 주니 천천히 걸어 나와 가장 가까운 나무로 날아갔다.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 하나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눅 12:24).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고, 눌린 자를 돕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자. 기도합시다.

2025 년 5 월 10 일

재난 및 기근 구호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와 함께 지속적인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한다. 오늘 모금된 기금은 재림교회 내 인도주의 단체인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 (Adventist Community Services) 및 ADRA 를 지원한다. 각 단체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 (ACS)는 미국, 캐나다, 버뮤다, 괌, 마이크로네시아를 포함한 북미지회 전역의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위기 상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50년 이상 재난을 추적해 온 긴급 사태 관리청의 기록에 따르면 토네이도의 파괴력은 증가하고 있고, 허리케인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총격 사건으로 인한 폭력과 살인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 (ACS)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ACS 자원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 모금 센터를 열어 기부를 받고 분류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고,
-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영적 케어를 제공하고,
-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수품을 전달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오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사역에 동참하여 아낌없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2025 년 5 월 17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아이들이 일할 나이가 되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이 아닌 때에도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사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준비한 선물을 열어볼 때의 형제자매의 반응을 보면서 서로가 큰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나는 기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부를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기부는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되는데 한 가지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다.

부부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이기적이지 않은 헌신의 예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선물은 선물이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에 그칠 때가 많다.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뇌물로써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들은 압박감이나 의무감으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드리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 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소망, 65).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5 월 24 일

합회 지원 헌금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모두 이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문화, 정치, 인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한다.

우리 합회에 속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달 합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은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자금을 지원하여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때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큰 축복들을 기대하여야 할 시간은 이르러 왔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더 높은 표준에 올라 가야만 한다...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보증을 가지고서 우리는 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226).

오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5 월 31 일

지역 교회 예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소유물의 십일조를 성소 봉사를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헌금이었다.

십일조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십일조는 모든 수입에서 걷게 되어 있었으며, 이는 예물과 헌금과 함께 당시 복음 사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됐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국을 넓히는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과 자원이 필요 된다.

십일조는 목회자, 교사, 선교사, 바이블 워커 등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구분 되어 사용된다. 반면에 다른 헌금은 교회 운영비와 다양한 사역을 위해 사용된다.

"가서 제자를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대사명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이 일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이 마련되도록 정하셨다. 그분은 복음 사역이 온전히 지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십일조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항상 거룩한 보고로 간주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 속한 돈으로 헌금을 드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의 사명을 함께 완수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6 월 7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수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서 밭을 일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매번 채소를 심고 가꿀 때마다 쉽사리 죽어 버려 결국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 마쳐야 했다. 매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후 성공적인 텃밭 가꾸기 방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찾아보고 나서야 올바른 토양, 급수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해 추천 사항을 따라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처음으로 토마토, 케일, 호박을 재배할 수 있었고, 처음 얻게 된 큰 수확에 놀라게 되었다. 이후 텃밭 일은 우리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텃밭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재배할 때 한 종류가 아닌 십수 가지 종류의 채소를 함께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배가 잘 되다 보니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작물을 생산하고 싶어졌고, 마침내 지난 여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농사 용어를 사용하여 나눔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6).

마찬가지로 십일조와 헌금을 아낌없이 바칠 때마다 우리는 풍성하게 심을 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헌금을 배가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기적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6 월 14 일

여성전도부 사역 헌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북미의 재림교회 여성들이 교회 안팎에서 다른 여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초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일례로 한 교회에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해 기존 여성도들이 그룹을 만들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 모임에 참석한 한 아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어머니 모임은 제가 믿음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마음에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실한 멘토 어머니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여성들이 이웃의 십대 소녀들을 위한 방과 후 그룹을 만들어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에게 필수적인 도움과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전도 모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성전도부 사역 헌금을 통해 이러한 활동과 더 많은 모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헌금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 훈련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원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북미 지역 재림교회 여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2025 년 6 월 21 일

지역 교회 예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구절 중 하나는 말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하나님은 우리가 십일조를 그분께 충실히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쌓아두고 간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바칠 때 기뻐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설계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와! 이것이 상상이 되는가? 그분의 축복은 영적, 정서적, 또는 육체적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그 축복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그분의 창고에 들여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목도해 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6 월 28 일

합회 지원 헌금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나는 젊어서 사도행전 20 장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오랫동안 동의할 수 없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나는 어떻게 "베풀면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오히려 나는 이 구절과 반대로 항상 선물 받는 것을 좋아했다. 선물을 사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내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는데, 그를 위해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베푼 선물에 보답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가족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구절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어 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7 월 5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아야 했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에 국기를 땅에 닿지 않게 해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일조와 헌금에 관해서 우리는 청구서를 다 지불하고 난 후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입과 축복에서 먼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우선시 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다. 음식, 의복 등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이런 것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문을 열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돌려 드리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7 월 12 일

세계 선교 헌금

약 30 년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된 이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이루어 온 성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새로운 민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나라로 진출했다. 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구원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여전히 많은 선교 과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과제들은 아니다.

약 2,000 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때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은 "제가 가겠나이다"고 하나님께 응답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전 세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혹은 난민 캠프와 같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처럼 거대한 선교의 도전 앞에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벽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를 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의 부족을 보지만 우리는 모든 자금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약함을 보지만 우리는 그분의 강함을 본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 오늘 특별 헌금을 드림으로 세계 선교를 지원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누가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하겠는가?

2025 년 7 월 19 일

지역 교회 예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희는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매주 겨우 먹고 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헌금할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재정이 빠듯할 때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헌금이 필요 없으실 거야."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힘든 시기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언약의 일부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앞에 우리의 물질을 증가케 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부르심, 197).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실천해 왔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실현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자.

십일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7 월 26 일

합회 지원 헌금

한 목회자 부부가 몇 년 전에 건강 클리닉을 열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부부는 병원 운영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리고 한 안식일 헌금 시간에 부인은 지갑에 있던 마지막 20 달러 지폐를 헌금으로 드렸다. 그녀는 하나님께 그 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더 잘 사용하실 것이라 믿었다. 남편도 지갑에 있던 마지막 20 달러를 헌금 바구니에 집어 넣었다. 두 사람은 예금 계좌에 75 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가족을 위한 식비와 학교 등록금과 공과금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음날 그녀는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한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기업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서류였는데 몇 달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지 이미 6 개월이 지났기에 그녀는 그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사실을 알렸다. 메시지를 받자마자 회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6,000 달러짜리 수표를 바로 보내주었다.

하나님은 위기가 닥치기 6 개월 전에 이 부부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부부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8 월 2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생일은 우리 가정에서 항상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의 생일이 되면 생일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생일이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 색칠하게 하곤 했다. 아이들은 멋진 선물이나 비싼 카드를 살 돈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만든 카드를 우리에게 선물했을 때, 우리는 그 카드를 그 어떤 비싼 시중에서 파는 카드보다 소중히 여겼다. 왜 그랬을까? 그 카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리 위대한 헌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재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4 증언, 119).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절할 것이다. 모든 이기심과 이기적인 동기가 사라지고 경외심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사와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8 월 9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

동정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해온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 (Christian Record Services)'이 125 주년이라는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다. CRS 는 창립 이래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장벽을 허물고 삶을 변화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의 등불이 되어 왔다.

나는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이 사역의 대상자 중 어렸을 때 산탄총에 얼굴을 맞아 실명한 엘리자베스라는 어린이도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CRS 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국 시각장애 아동 캠프에 참석해서 "이 캠프에는 많은 사랑과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캠프는 CRS 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서비스로는 성경 공부 책자, 책, 잡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00 여 권의 오디오, 점자, 큰 활자로 된 성경 등이 있다. 회원들은 또한 PhoneFaith, 고등 교육을 위한 장학금, 전국 시각장애 아동 캠프를 통해 사회적, 교육적, 영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의 헌금은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복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5 년 8 월 16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정원 가꾸기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처음 가지치기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이것이 불쌍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실수의 가지를 치면 더 많은 꽃이 피게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줄기, 가지, 잎의 수를 줄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 재능, 성전 (몸), 재물, 간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가지치기와 같다. 논리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신다.

우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손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형태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업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늘어나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다. 그분의 축복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 필요에 응답하고 그분의 축복의 증가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8 월 23 일

합회 지원 헌금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호소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드리도록 설득하기 위한 세련된 '세일즈 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그룹은 "힘들 때까지 드린다!"고 말하고, 다른 그룹은 "드릴 때마다 힘들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고 말한다. 성경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태도로 헌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헌금을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촉구"하거나 "구걸"하지 않는 "사랑"의 헌금 또는 "자유 의지"의 헌금인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세속적인 것과 이기적인 동기를 완전히 없애고 신성한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2025 년 8 월 30 일

지역 교회 예산

바나 그룹의 연구 프로젝트인 "왜 베푸는 것이 좋은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관대함은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65%)의 경우, 자신도 누군가의 관대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1]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야 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 17:17).

이번 달과 올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 헌금해 보자.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기대하도록 격려받는다. 다음의 약속을 보라.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큰 축복들을 기대하여야 할 시간은 이르러 왔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더 높은 표준에 올라 가야만 한다...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보증을 가지고서 우리는 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226).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께 축복을 구해 보는 건 어떤가?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

[1] (Barna Group, "Why Giving Is Good", Nov. 2021).

202 년 9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셨다. 8 명의 대가족이 사는 집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큰 냄비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좁은 부엌에서 매번 큰 요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지 놀라곤 했다. 나는 어머니를 기적의 요리사라고 불렀다.

나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루신 기적에 대해 종종 흥미를 느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배운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기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점심을 바친 어린 소년의 관대함에 집중하셨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심지어 제자들은 소년에게 강요하거나 점심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소년은 자신의 점심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다.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며 헌물의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요 6:9).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소년의 점심이란 헌물을 사용하여 수천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잔치를 베푸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보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근거가 된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그분은 그 헌금을 축복하시고 배가시켜서 복음이 수천 명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우리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과 함께 나누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헌금을 배가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합시다.

2025년 9월 13일

세계 선교 헌금(강조: 라디오 선교)

awr.org/offering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재생할 수 없다면 이 글을 참고하라!

병 속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한 독실한 이슬람 신자에게 일어났다. 그는 어느 날 재림 교회 세계 라디오 사역 단체가 출간한 비디오 성경 공부 시리즈 전단지가 들어 있는 병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아내와 10명의 자녀와 함께 그 동영상을 시청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의 딸 사라가 동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라 숨을 헐떡이며 가족들에게 외쳤다. "이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제 꿈속의 남자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본 후 온 가족은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는 이 가정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나사렛에 있는 AWR 라디오 방송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그 결과 수백 명이 방송국에 연락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은 중동만이 아니다! 또 다른 불모지인 유럽에서 작년에 38개국의 1,530개 교회가 AWR과 "전 교인 참여 운동 (TMI)"의 '유럽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Europe)' 전도 활동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부터 런던에서 열린 대관식 행사에서 집회 소식을 접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전도회에 참석했다.

재림교회의 모든 라디오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아낌없는 헌금을 드려주기 바란다.

2025 년 9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다. 망고는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맛을 자랑한다. 망고의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은 망고를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과일로 만들어준다. 첫 맛은 감미로운 단맛이지만 이후 약간 시큼한 맛이 뒤따르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편 34 편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 34:8-9).

시편 34 편 8 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을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이다.

주님을 '맛본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신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미각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을 음미하고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의 풍성함을 음미하고 감상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도록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하심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천연계의 아름다움, 친절한 행동,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에도 그 선하심이 깃들어 있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확인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9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우리는 자연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중 개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개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군집이라고 하는 세심하게 구조화된 사회를 이루고 생활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개미 군집 내의 단결력은 매우 심오하여 생존, 성장, 번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며 하나의 통일된 개체 또는 "초유기체"처럼 기능한다. 일개미는 종종 팀워크를 발휘하여 더 큰 물체를 옮기고, 성공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움직임을 조율한다. 예를 들어, 가위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50 배에 달하는 나뭇잎과 기타 식물을 운반하는데 이는 사람이 약 7,850 파운드를 들어 올리는 것과 맞먹는 무게이다.

한 달에 한 번, 한 안식일에 드려지는 헌금은 합회 지원을 위해 따로 정해진 헌금이다. 이 헌금은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전도에 사용된다. 초등학교 교육, 삼육학교 운영, 월간 연합회 잡지, 여름 캠프, 청소년 전도 사역도 합회 지원 헌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매월 지정된 안식일에 각 성도들이 더 큰 사역을 위해 드린 헌금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헌금에 동참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역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조직적으로 헌금할 때 많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기도합시다.

2025 년 10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아내와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스스로 손 씻기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배우자와 직업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독립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적 의존의 중요성도 이해하기를 바랐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자립을 장려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염려와 계획을 그분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 건강, 재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초조해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기도와 예배,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 간다.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는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0 월 11 일

연합회 지원 헌금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인생에서 잘못된 것에 투자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는 풍족한 중에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 하신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 12:13-21).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 즉 그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선을 행하고 관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 장 18 절에서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촉구한다. 즉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나 금전적 기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관대함의 태도에 관한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과 행동에 관대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드리는 헌금은 연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연합회 지원 헌금은 개별 합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과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돕는다. 기도합시다.

2025 년 10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아내와 나는 전국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중 사모아 공동체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목회자와 장로들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경심이었는데, 그것은 왕이 받는 영예에 버금가는 경외심이었다.

젊은 성도들은 파트락을 먹을 때 어른들을 먼저 배려하고 목회자들을 경건하게 대하는 독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런 존중의 행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기쁨처럼 보였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통해 그분을 향한 최고의 존중을 보여줄 때 우리 삶이 그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예배가 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제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헌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겸손하고,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인 것이다" (높은 부르심, 197).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베푸는 행위이다. 헌금의 금전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0 월 25 일

합회 지원 헌금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 항상 내 마음에 흥미를 자극해 왔다.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그녀는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녀의 행동이 성경에 언급된 것일까? 내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다.

과부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¼페니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성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만 헌금한 것과는 달리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다. 이 과부의 모본은 이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헌금이라면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부자들이 바치는 거액의 헌금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가난한 자들도 주는 특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사업에서 한몫을 감당할 수 있다.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적은 예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꺼운 예물이면 부자의 가장 많은 헌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바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3 증언, 398).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1 월 1 일

지역 교회 예산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4).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할 때, 그분은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40 년 동안 사용해도 닳지 않는 옷과 샌들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확증이다.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나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되새긴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처음 구입한 전자레인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확증이 되었다.

이 전자레인지를 10 년 정도 사용하자 언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지에 대해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내는 "언제든 이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면 교체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췄고, 아내는 교체할 생각에 기뻐했다. 나는 가전제품 수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날 오후 한 교인을 방문했을 때 그 교인이 우리의 고민을 듣고는 전자레인지를 살펴봐 주겠다고 했다. 2 분 만에 그는 "목사님,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퓨즈를 교체했더니 잘 작동합니다!"라고 말했다. 퓨즈 비용은 단 12 센트였다. 그 전자레인지는 이후 고장 없이 잘 작동되어 총 21 년 동안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다른 가족에게 줄 때까지 계속 작동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돌보실지 체험해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1 월 8 일

세계 선교를 위한 연말 희생감사헌금

1857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유럽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던 삶에 대해 학생들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활동,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화, 내세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희망 그 자체가 이미 큰 보상인데 무엇을 희생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와 생각에서 떠나십시오! . . .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보좌를 떠난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총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를 의미하는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십일조와 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2025 년 11 월 15 일

지역 교회 예산

맥킨지 앤 컴퍼니 (McKinsey & Company)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직장인 중 약 2/3 가 코로나 19 로 인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건강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회사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도 높았다. 직원들이 자신의 목적이 조직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느낄 때 회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지며,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추천할 의향이 높아지는 등 그 생산성은 더욱 확대되었다.[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 확장 사업에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자기 부인, 동정심, 친절, 양선,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오늘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늘 왕국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을 실현해 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

[2] (McKinsey & Company, April 5, 2021, article, "Help your Employees find Purpose -or Watch them Leave.)

2025 년 11 월 22 일

합회 지원 헌금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결혼식 날 아내와 내가 주례자의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고 진실하겠다고 서약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을 서로에게 말과 행동, 그리고 선물로 표현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한 날, 그분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 그분을 경배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언약을 실천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십일조와 헌금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들과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는 바 그것은,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부분을 규칙적으로 구별한다면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축복하사 주의 선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것이다" (청지기, 77)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거대한 은하계의 운행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우주의 통치자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예물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는 합회 사역을 지원하는데 동참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1 월 29 일

연합회 지원 헌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수 원칙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실로 변모시키셨다.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신뢰와 감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강을 만들어 그들의 갈증을 쉽게 해소시킬 수도 있으셨고, 몇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의 필요를 위해 매일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다. 40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음식과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료품이 있는 주방을 가진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쉽게 충족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 4: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넘어선 필요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인간의 필요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필요를 위한 영양분과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신실함에 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연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2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어렸을 때 나는 수학에서 특히 곱셈이라는 개념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다. 곱셈은 더 높은 합계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곱셈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곱셈은 특정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동일한 숫자를 더하는 수학적 과정이다.

이 수학적 원리는 나중에 영적인 삶에서 재발견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통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혼자서 다섯 가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다섯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제자삼는 자'의 본질이다.

이러한 영적 곱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배가시켜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확장해 가신다. 하지만 우리는 헌금할 때 수학적 계산에 집착하거나 결과를 합리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 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소망, 371).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배가시키시는지 체험해 보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2 월 13 일

어드밴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ACS)

누가복음 10 장 30 절에서 37 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에게 구타당한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남자를 보고 도움을 주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도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우선 순위를 핑계 삼아 그를 돕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나라와 부상당한 사람의 나라 사이에 팽배하던 증오심도 그의 연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돕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누가복음 10 장 37 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로 여기며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ACS)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ACS 는 재림교회, 즉 여러분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북미 지회 전역에서 우리의 헌금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음식을 제공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기저귀를 나눠주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치과 진료소를 개설하는 등의 도움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 모두 이웃에게 구호와 위로를 전하는 ACS 팀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자.

2025 년 12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당시 여섯 살이었던 아들이 네게 다가와 "아빠, 돈이 많이 필요해요, 빨리 그 돈을 마련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왜 돈이 빨리 많이 필요한데?"라고 물었다. 나는 아들이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고, 아마도 새 장난감이나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 엄마를 위해 멋진 선물을 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마음이 뿌듯해져서 아들이 필요한 만큼 용돈을 주었다.

아들은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었다.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에 비춰 생각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측정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재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4 증언, 119).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5 년 12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저자 멜빈 산토스 목사님의 간증:
내가 십대였을 때 영감의 글에서 아주 강력한 약속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 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치료, 481).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음식과 집,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많은 지출이 생겼고, 1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고민할 정도였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기저귀 단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도 우리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헌금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을 합리화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신 수천 가지 방법으로 인해 놀랍기만 할 뿐이다. 그 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합리화하지 말자. 십일조와 헌금을 충실히 드려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합회 지원 헌금을 위해 사용된다. 함께 기도합시다.